

공(空), 무한을 여는 열쇠

| 용타스님 |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지만 '보지도 듣지도 않는' 상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의식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5부)

026. 초월론1: 공리(空理):

연기고공(緣起故空):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因緣)에 의해 존재하므로 공(空)하다. 존재하는 것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른 것들과 인연을 맺음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면 존재 그 자체를 실체라 할 수 없다. 중생이 무언가에 집착함으로써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고정된 실체(實體)로 구획지우는 심리(心理)에 있다. 길동이가 나를 때렸다면 구획되어 있는 길동이를 실체시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가? 그런데 길동이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모와 조부모와 외조부모 등 한정 없는 선조들과의 연결고리로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을 위시한 무한 무수한 대자연 등 유형무형의 전 우주와 연결고리를 가짐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이다. 고로 <길동이가 나를 때렸다> 하지 말고, <그의 부모와 조부모와 외조부모 등 한정 없는 선조들과 나아가 공기와 물을 위시한 무한 무수한 대자연 등 유형무형의 전 우주가 나를 때렸다>고 연기적으로 가만히 사유(思惟)¹⁾해보라. 자연히 길동이에게 집착하면서 속 끓이던 마음으로부터 해탈해버릴 것이다.

욕구를 최소화(最小化) 내지 제로화(零化)하는 비결은 욕구의 주체와 욕구의 객체가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너무도 <있는> 현실을 두고서 어찌 <없다>는 이치를 꾸역꾸역 찾아 <없다>고 해야 하는가?’하고 역정(逆情)을 낼지도 모른다. 그것은 ‘적당한 수준의 행복으로 살면 됐지 무슨 해탈까지 기대하는가?’ 하는 심

1) 팔정도 중의 두 번째 덕목인 정사유(正思惟)

리(心理)이다. 이것은 코앞에 있는 한 자락의 검불만 치워버리면 무한(無限) 차원의 천지가 열리는데 꾸역꾸역 유한(有限) 차원의 세상에 묶여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공(空)이란 바로 한 자락의 검불을 제치고 무한(無限)을 여는 열쇠와 같다. 마음의 완벽한 해탈을 지향하는 문화를 <영성문화(靈性文化)>라 해보자. 인류의 영성문화(靈性文化) 역사상 완벽한 자유의식(自由意識)을 끌어올 수 있는方便(方便)으로는 공(空)의 이치(理致) 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필자는 공(空)의 의미를 크게 생각한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니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공(空)의 이치를 깨달아 해탈하셨고, 불교(佛敎) 전체를 대변하는 가르침도 공(空)이어서, 아예 불교를 공문(空門)이라 할 정도로 공(空)은 불교의 핵심이다.

진정 완벽한 해탈을 원한다면 공문(空門)을 열어라. 공(空)이란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법칙>이요 <존재 원리>이다. 이 존재 원리를 알지 못하면 존재하는 것들을 고정된 실체로 인식한다. 나, 너, 그이, 그녀, 그것, 등등 우주 만물을 실체시(實體視)하고 이름을 달면서 [있다→좋다→싫다→고통]의 윤회 놀음을 그치지 못한다. 깨닫고 보면 연기(緣起)이므로 공(空)한 것인데, 어느 것도 실체시할 수 없는데, 실체시하고→가치시하고→욕구하고→분노하고→고통과 전쟁을 하는 중생의 삶! 그런 삶을 당연시하고 인생이 본래 그런 것인 양, 역사가 본래 그런 것인 양, 그렇게들 살고 산다. 그것을 일러 중생놀음이라고 한다. 그러하니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는가, 그대로 머물러야 하겠는가? 벗어나야겠다면 공리(空理)를 파지(把持)하는 일부 터 하라. 불원간에 출판될 해공십조(解空十條, 가칭)라는 필자의 책은 연기고공(緣起故空)을 비롯, 27개의 공리파지의 길을 안내하고 있지

만 시급한 것은 그 책을 손에 쥐는 일이 아니라 완전한 해탈을 진정으로 희망(希望)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희망하는 마음이 목에까지 차오른다면 해공십조의 어느 한 자락에서도 큰 해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그 27개 중 첫 공리(空理)인 연기고공(緣起故空) 하나만 소개하겠는데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음미(吟味)하면서 사유(思惟: 사색)해보는다면 분명 뚫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공리(空理: 공의 이치)를 파지(把持: 이해)해서 존재계의 공성(空性)이 수궁된다면 그 수궁 정도에 상응(相應)해서 무한감(無限感)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이에 욕구의 최소화 내지 제로화로 인해 얻어지는 무한의 행복-해탈감을 체험한다면, 이것이 선오(先悟)요, 돈오(頓悟)이며, 일상삼매(一相三昧)이다. 이를 거듭 재생산한다면, 이것이 후수(後修)요, 점수(漸修)이며, 일행삼매(一行三昧)이다.

027. 초월론2: 식리(識理: 識의 理致, 念體故空)

염체고공(念體故空):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실체(實體)로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의 염체(念體)일 뿐이니 공(空)하다. 염체란 감정염체-욕구염체-의지염체-신념염체-인상염체-사실염체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서 불해탈(不解脫)을 경험하는 것은 대체로 사실염체(事實念體)를 실체시하는 데서 온다. 어떤 사실도 자신의 <마음의 내용(사실염체)>일 뿐이다. 소박실재론적인 사실은 비쳐지는 현상일 뿐 실제적 사실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 어떤 상황이든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염체(事實念體) 꼭 사실처럼 여겨지는 염체라고 가만히 관조해보면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감(感)으로 느끼게 된다.

사람의 고통은 무언가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식(識)의 이치 차원에서 본다면 무언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식(識)이 있을 뿐이다. 만법유식(萬法唯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임)이요 유식무경(唯識無境: 오직 식이 있을 뿐이고 경계란 없는 법임)이라 했다. 무언가가 밖에 있다고 여길 때 그것에 대해 <분별-시비-집착>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다투는 법이다. 길동이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하자. 길동이라는 사람이 밖에 있는가, 아니면 길동이라는 생각(識)이 내 의식 공간에 있는가? 누가 그 길동을 밖에 있는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식(識)이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깨달음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의식공간에 염체(念體: 의식덩어리)로 뜨지 않는 한 경험할 수 없는 법.

염체(念體)는 느낌염체, 욕구염체, 의지염체, 신념염체, 인상염체, 사실염체 정도로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사물이나 상념을 접함으로써 해서 일어나는 느낌염체,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염체,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염체, 다양한 신념염체 등은 누구나 그 사람의 염체인 줄 안다. 나아가 마음에 떠올려지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마음속의 인상염체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컵이나 각종 물건들, 그리고 늘 만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염체임을 안다는 것, 눈앞에 보이는 산하대지를 그 모양, 그 색깔, 그 크기의 산하대지(山河大地)가 그렇게 자기 눈앞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눈앞에 있는 듯이 여겨지는 그것이 자기의 의식공간에 자기가 주관적으로 표상(表象)하고 있는 자신의 염체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실을 바르게 앞으로

인해, 혹은 어떤 이치를 바르게 앎으로 인해 마음에 큰 평화를 얻을 때, 그 앎을 깨달음이라 한다. 공리파지(空理把持)라는 깨달음은 이치(理致)의 앎이요, 사실염체(事實念體: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염체)라는 깨달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앎이다.

어떠한가?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세상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공간 안에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표상(表象)하여 그리고 있는, 마음속의 자기 그림이라는 것이 수궁되는가? 수궁된다면 식리(識理)를 뚫은 것이다.

식리(識理: 識의 理致, 念體故空)를 파지(把持: 이해)해서 존재계의 공성(空性)이 수궁된다면, 곧 ‘아! 내 앞에 전개되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온 세상이 내 식(識)의 내용인 나의 염체일 뿐, 저기에 저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만법유식(萬法唯識)이 그것이요 유식무경(唯識無境)이 그것이구나!’ 하고 수궁될 것이다. 나아가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꽂히던 관심의 에너지가 대상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회수되는 감(感)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회광반조(廻光返照)이다. 이 감(感)이 보다 수궁되고 보다 깊어지면 안으로의 고요함과 평화감이 보다 깊어지고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응무소주(應無所住)가 이것이구나!’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밖으로 나아가 이것저것 세상살이를 하지만 걸림 없는 삶, 함이 없는 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왈, 이생기심(而生其心)이다. 이렇게 그 수궁 정도만큼 무한감(無限感)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이에 욕구의 최소화 내지 제로화로 인해 얻어지는 무한의 행복-해탈감을 체험한다면, 이것이 선오(先悟)요 돈오(頓悟)이며 일상삼매(一相三昧)이다. 이를 거듭 재생산한다면, 이것이 후수(後修)요 점수(漸修)이며 일행삼매(一行三昧)이다.

028. 초월론3: 자성(自性: 본 성품, 오염되기 이전의 본래 마음)

자성고공(自性故空) :

자성(自性)이므로 공(空)하다. 자성은 공리(空理)를 수단으로 하든, 선정(禪定)이나 주력(呪力)이나 간경(看經) 등을 수단으로 하여 깨달을 수 있다. 자성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힘에 비례해서 일체 경계(境界: 대상: 色聲香味觸法)에 대해 분별시비집착(分別是非執着)하던 마음이 쉬어버린다. 즉 절로 천하가 공(空)해져버린다.

자성파지(自性把持)²⁾가 공리(空理)에 의해 터득되었다면 공리(空理)는 인위(因位)요 자성파지는 과위(果位)이다. 반대로 자성을 깨달은 상황에서는 자성파지(自性把持)가 인위가 되고 공리파지(空理把持)가 과위가 되어 자성과 공리는 서로 인과상응(因果相應)의 관계가 된다. 자성이란 오염되지 않은 본 성품으로서의 마음이다. 누구나 이미 자성이 있고, 자성으로 살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성을 인식한다면 바로 견성(見性)이다. 자성파지(自性把持)를 하려면 우선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회수해야 한다.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경계에 중독되어 있는 습관성 때문이다. 일체의 대상을 마음으로부터 놓아보면 자성은 그냥 절로 드러난다. 마음 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리(空理) 등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성을 파지(把持)한 사람은 가만히 자성(自性)을 묵묵히 관조하고 있어 보라. <묵조(默照)> 천하가 고요히 공(空)해져버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성은 다시 천하가 공해진 의식의 힘을 입어 더욱 성성적적(惺惺寂寂)³⁾의 깊이가 더해지리라.

2) 자성을 인식함, 자성을 깨달음, 자성을 수궁함

3) 깨어 있되 고요하고 고요하되 깨어 있는 의식 상태

자, 어떠한가? 이 세상 최고의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설문 자체가 우문(愚問)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질문이다. 이 세상에는 신비 아닌 것이 없는 것이요, 굳이 최고의 신비를 논한다 해도 모두다 최고의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말이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비이다. 또 그 자기 중에서도 최고의 신비는 무엇일까? 물론 우문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신비의 극치요 실핏줄 하나하나, 머리카락, 손톱발톱이 다 신비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그것은 <마음>이고 <의식(意識)>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마음(의식)! 신비하지 아니한가! 더 물어볼까? 이 세상 최고로 귀한 것은 무엇일까? 마음(의식)이지 않을까?

그래 마음! 의식! 인생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하나는 역시 마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부처라는 가장 신성한 단어로 이르기 도 한다. 달마대사께서는 즉심즉불(卽心卽佛: 마음이 바로 부처)이라고 하셨고, 마조대사는 사람 자체가 부처라고 하셨다. 물론 불교 경전은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다 부처이니 우선 사람으로 사는 우리는 사람부처부터 논해보자는 심리가 달마대사, 마조대사의 의중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자신을, 여러분 마음을 부처라고 생각하는가? 보조 스님의 수심결 글을 끌어와 보겠다.

嗟夫 今之人迷來久矣 不識自心是真佛 不識自性是真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佛而不觀己心 若言心外有佛 性外有法 堅執此情 欲求佛道者 縱經塵劫 燒身煉臂 敲骨出髓 刺血寫經 長坐不臥 一食卯齊 乃至轉讀 一大藏教 修種種苦行 如蒸沙作飯 只益自勞爾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을 모르고 있다. 법을 멀리 성인들에서만 구하려고 하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굳게 고집하여 불도를 구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며, 피를 뽑아 경전을 쓰고 밤낮으로 눕지 않으며, 하루 한 끼만 먹고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며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보람도 없이 수고롭기만 할 것이다.

보조 스님의 간절한 말씀이 전해지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라면 부처 중 부처는 사람이요 마음이다. 마음도 여러 층이 있다. 여러 층의 마음 중 가장 바탕이 되는 마음을 자성이라 한다. 자성(自性) 혹은 본성(本性)이란 견성(見性)이라 할 때의 성(性)을 의미한다. 불가에서는 그 자성을 깨닫는 것, 곧 견성(見性)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견성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견성이라는 것이 평생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불교인에게 깊은 신드롬으로 만연해 있다. 보조 선사의 정성스런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음미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그 자성(自性)에 대한 연찬(研鑽)을 하고 있다. 석가모니는 그 자성(自性)을 '자성'이라는 단어로는 쓰지 않았지만 가르침(강의)을 통해 전하셨고 6개월 정도의 시간에 60명의 아라한(阿羅漢)을 배출하셨다.

지금 필자도 가르침을 통해 수련장에서 수련생으로 하여금 그 자성을 깨닫게 한다. 지금은 미내사 독자들에게 글로 전해보는 것이다. 자, 자성(自性)을 깨닫고 싶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성이란 [그냥

있음이다. 자성이란 [그냥 깨어있음]이다. 요즈음 뉴에이지 영성촌에서 <깨어있음>이라는 말을 무수히 쓰고 있는데 쓰는 그들이 제대로의 자성을 말하는 것인지는 다시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필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성(自性)>을 <깨어있음>이라 표기해도 좋을 듯해서 <깨어있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육경(六境: 色聲香味觸法) 속에 있되 육경 어느 곳에도 마음이 가지 않고 그냥 깨어있기만 하는 의식, 그것이 자성이라는 것이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 무심(無心)히 쉬고 있을 때의 마음 상태를 기억할 것이다.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지만 보지도 듣지도 않고 안으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의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상태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 의식 상태가 ‘아, 이것이 나의 본(本) 성품(性品)이겠구나, 자성(自性)이겠구나!’ 하고 여겨지는가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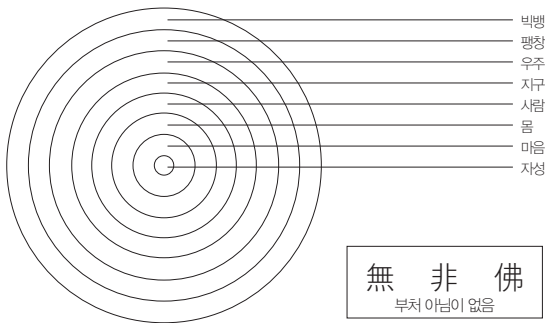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누구나 이미 자성(自性)으로 존재하면서도 자성으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다양한 염체(念體)에 길들여져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일 때, 구름에 길들여져있다면 구름만 보일 것이요, 하늘을 유념하는 사람은 하늘이 보일 것이다. 마음을 관찰해도 마찬가지다. 바로 지금, 그냥 있어 보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서 아무것에도 마음이 가지 않는 무심(無心)한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라. 여러분 중 누군가는 무심한 마음 상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히 자성(自性)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자성이 순도가 약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자성의 순도가 약하다고 해서 자성이 아닌 것인가? 24금만 금이고 18금은 금이 아닌 것인가? 문무(文武)가 취약하다고 해서 황태자가 태자가 아닌 것인가? 쇠에 녹이 슬어있다. 녹슨 쇠는 녹인가 쇠인가? 돈 없고

무식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인가? 46억년을 불철주야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인간으로 진화해온 사람이 “나! 아주, 아주 잘났다.”고 외치면 미쳤다고 할 것인가? 못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네 마음이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라고 얼마나 더 일러주어야 스스로를 부처라고 받아들이겠는가?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지금여기, 무심하게 존재하는 이 <마음>, 이 <나>가 바로 자성이요 부처이다.

이때 중시해야 할 것은, 본인의 그 무심한 마음이 오염(汚染) 이전의 순도(純度) 100의 마음이나 아니냐의 과학적 논의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느냐 없느냐 하는 신념(信念)이다. 누구나 구름이 전혀 끼지 않은 완벽하게 맑은 하늘을 수백 번은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보았던 그 하늘은 정말 완벽하게 맑은 하늘이었을까? 완벽하게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믿는 것일 뿐, 과학적인 사실이 아님은 뻔한 일이다. 사실상 어디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하늘이 있을 것인가? 단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 황태자가 검술이 초단도 못되니 ‘나는 태자가 아니야!’ 하고 있다면 답답할 것이다. 당신도 바로 그런 답답한 사람은 아닌가? 이것이 학문(學問)과 도학(道學)의 차이이다. [학문은 사실을 다루지만 도학은 마음을 다룬다. 모든 것은 마음의 큰 행복, 큰 해탈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은 도학을 위한 좋은 방편이 된다. 사람은 과학적으로 논의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신뢰감을 갖는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을 행복해탈을 위한 방편으로 끌어올 때 더 매료되는 법이다]

천하에 부처 아닌 것은 없다. 빅뱅 이전의 입자 우주가 부처요, 우주의 팽창 전 과정이 부처요, 어느 정도 형성된 우주가 그대로 부처요, 지구위의 모든 것, 사람으로부터 파리, 모기까지가 다 부처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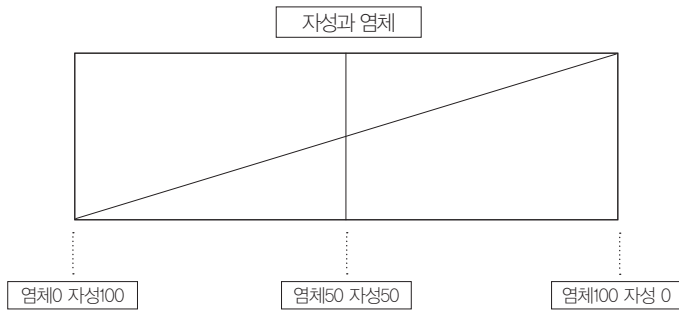
물며 사람은 말할 나위 없다. 사람의 마음, 역시 그러하다. 무심히 여
여하게 깨어있는 이 자성은 역시 부처이다. 다 부처인데 왜 유독 자성
(自性)에 그토록 힘을 주었을까? 그것은 우선 사람부터, 우선 사람의
마음부터, 사람의 마음 중에서도 아직 무언가로 오염되지 않은 자성
부터 논하자는 것뿐이다.



* 자성과 염체의 함수성:

의식공간(意識空間)은 자성공간(自性空間)과 염체공간(念體空間)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편리하다. 자성공간이란 구름이 끼지 않은
허공 같은 마음이요, 염체공간이란 허공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
태양-달-별-구름 등의 것들에 비유될 수 있는 다양한 느낌염체, 욕
구염체, 의지염체, 신념염체, 인상염체, 사실염체 등이다.

자성공간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염체들에 집착되고 중독된 나며
지 무한(無限)하게 열린 자성공간(自性空間)을 잊어버린 채 그 자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중생 일반이다. 이에 어떻게 무한으로 열린
자성공간을 자각하고 무한의 열린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해야
한다.



우선 <열체100 자성0>⁴⁾과 같은 깜깜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 깜깜함은 느낌이 그러할 뿐 무한으로 열려있는 자성이 그 바탕에 있음을 믿는다. 마치 하늘에 온통 구름이 가득하여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구름 저편에는 탁 트인 하늘이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일차적으로는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믿음 심리는 모를 때 일어나는 것이다. 모르면서 믿고만 있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의 병리(病理) 현상이다. 그래서 다음은 자성을 직접 깨달아야 한다. 마치 구름이 걷힌 구멍을 통해 하늘을 직접 보는 것과 같다. 즉 얇이, 깨달음이 일어나야 한다. 도식으로 말하면 <열체50 자성50>⁵⁾에 해당된다. 위빠사나와 같은 수행법이나, 깨어있음 운운하면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대체로 그 무심한 자성을 느낀다. 즉 <열체50 자성50>에 해당하는 체험을 한다. 그러나 그것에 자성(自性) 혹은 견성(見性)이니 하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열체0 자성100>을 집

4) 열체가 극심하여 자성을 아예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

5) 열체가 많이 있더라도 자성의 의식영역(意識領域)을 느끼는 경우

착하기 때문이요, 자성과 견성 같은 것을 심히 신비화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 큰 소리로 외치거니와 그것 말고 따로 견성이 있고 자성이 있다고 여긴다면 18금은 금이 아니요, 녹슨 쇠는 쇠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이름을 붙임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이름을 붙임으로 인한 공덕도 있는 법, 한 시대 강풍을 일으켰던, 정신력의 기적이니, 신념의 마력이니, 시크릿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이름 붙임으로 해서 최대의 공덕을 끌어왔던 역사적인 사례이다. 스스로를 중생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 좋을까, 부처라 이름 붙이는 것이 좋을까? 어느 것이 옳음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필자의 경우는 부처라, 활불(活佛)이라 이름을 붙이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공리(空理), 식리(識理), 자성(自性)을 통해 욕구를 최소화 내지 제로화하는 길을 제시했다. 다음 호에는 이 셋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행하는 돈망(頓忘)의 명상법을 안내할 것이다. 돈망은 동사섭의 고급과정 주제가 된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용타스님은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만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 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